
한국 코미디 영화 속에 나타난 키치패션에 관한 연구

-2002년~2004년 상반기 상영된 영화를 중심으로-

A Study of Kitsch Fashion Reflected in Korean Comedy Mov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ovies Released Between 2002 and 2004-

이영숙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Young-Sook Lee(young@tu.ac.kr)

요약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 등장한 키치(Kitsch)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산업화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 키치는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패션부분에서도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파피라는 형태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미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키치에 대한 기본 이해와 아울러 최근의 국내 코미디 영화 속의 표현된 배우들의 패션에서는 키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았다.

■ 중심어 : | 키치 | 대중문화 | 고급문화 | 패션 |

Abstract

"Kitsch", having emerged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has been playing a role of interconnecting pop culture with high level culture, now claiming new aesthetic values in a variety of pop cultures of our industrialized modern society and holding its position as a cultural phenomenon. In the realm of fashion which is very much attached to everyday life, kitsch has also been expressing new forms of beauty through the liberation from and destruction of the fixed idea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as to how we obtain the basic understanding of kitsch and shows how it was expressed in the fashion of the actors starring in the recently released Korean comedy movies.

■ keyword : | Kitsch | Pop Culture | High Level Culture | Fashion |

1. 서론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전문화 등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와 같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 대량생산, 대

량전달,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예술이라고 부르는 문화 산물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양산된 문화는 사람들의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고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더욱더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화, 세분화된

육구는 예술분야에서 더욱더 새롭고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스타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패션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패션에 나타난 스타일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소, 생활습관, 경제 및 정치적 상황, 예술적 경향까지 표현하고 있어 시대의 산 증거임을 알 수 있다.

패션은 개인의 심리와 역할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행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야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키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변화된 자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대중문화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키치 현상은 대중 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표현되는 패션에서도 빠르고 폭 넓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존의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저속함, 유치함, 부조화라는 형식의 파괴 형태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 예로 화려한 색상의 머리카락, 피어싱, 구멍 뚫은 청바지, 치렁치렁한 구슬이 달린 가방 혹은 신발 등은 기발하고 자극적인 우리가 흔히 대하는 패션의 키치 현상이며 이러한 차림은 오늘날 개성표현을 중시하는 패션 오피니언 리더에게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키치패션은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국내 코미디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착용한 패션에서 발견된 키치를 분류, 분석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키치의 개념

키치의 어원으로는 첫째로는 1860년대부터 1879년대 사이에 독일 뮌헨의 화가들이 값싸고 하찮으면서도 많이 팔릴 수 있는 조잡한 예술품, 혹은 그림 등을 키치라 불렀는데 당시 뮌헨을 찾은 영국계 미국인들이 사갔던 그림들을 'Sketch'라고 불렀던 것이 독일어식 발음으로

변형이 되면서 Kitsch가 됐다는 설이 바로 'Sketch설'이다[1].

둘째는 메클렌부르크 방언에서 '값싸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verkitschen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는 설과[2], 셋째는 '일록' 혹은 '진흙을 가지고 놀기'라는 독일어에서 왔다는 설로 여기서 진흙이라는 의미는 더럽다는 것으로 키치의 부도덕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사전에서는 키치를 "고급문화의 미적 기준을 부적절하게 모방한 대량생산된 예술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용어" 혹은 "통속적이고 저속하고 값싸고 나쁜 취향으로서 쉬크와 대립되는 개념의 사물이나 이미지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키치의 용어를 '모조품'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뒤에 기능주의적인 모던 디자인의 경향을 'good'이라고 한다면 키치는 'bad'를 의미한다고 하는 디자인 평가의 대립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4].

또한 키치는 "참된 문화의 가치에는 무감각하면서도 특정한 문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오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대중문화라고 하였고[5] 그 예로 시뮬레이션, 복제품, 모조품으로 현실에 대한 의미작용의 빈곤, 기호와 우의적 지시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예술과 원색 화보가 있는 문학지, 잡지의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광고, 호화판 잡지. 선정적인 싸구려 소설, 만화, 유행가, 탭댄스, 할리우드 영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키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면서 통속적으로 저속하고 나쁜 취향의 하찮은 사물과 이미지의 총칭이면서 진품이 아니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값이 비교적 저렴한 것이며 윤리적으로는 부정함이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키치의 발생배경

19세기 산업혁명은 신분, 계급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상품생산의 양적공급의 변화를 가져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새로운 시대는 대부분의 사회계급을 소비자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취향의 문제를 역사 정면에 부각시키기 시

작했다.

키치의 출현 시기는 19세기 이후 새로운 제조 산업문화의 출현과정에서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시민계급의 부의 축적으로 인해 중류계층으로 상승하는 '사회적 지위 이동현상'으로 파생되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민계급은 상류계층의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논리 규범을 예술작품의 생산과 관계 지으려는 태도를 나타내려 하였다[6].

Moles는 키치의 등장을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욕구를 만족시킬 수단이 많아지게 되는 서구 자본주의 시민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발전과정에서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물질적 풍요를 통한 소비욕구의 증가를 가져온 소비사회의 미학적 운명"이라고 하였다[7]. 이 말을 토대로 키치의 발생을 미적 원천과 사회적 원천으로 나누어 보면 미적 원천은 예술적으로 타락한 낭만주의의 결과물이며 사회적 원천은 19세기 중반 부르주아 사회에서 나타난 예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부르주아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방식으로 귀족계급이 사용한 기호들을 차용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키치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산업혁명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파급되었다[8].

3. 키치패션의 특징

키치패션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을 통해 일부러 저속함을 나타내는 패션으로 품위 없는 천한 모습의 옷차림과 싸구려 액세서리 등에 의한 과잉장식을 통해 지저분하고 추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옷차림을 말하며 고급패션에 질린 젊은이를 중심으로 놀이기분으로 키치 감각을 도입한 것을 말한다[9].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행이 지난 상류계층의 하이패션이 싼 값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져 중하류 계층이 이를 애용하였고 이것이 기성복 산업이 출현, 발달하면서 의복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기계방직의 발달로 기성복 산업은 급속하게 발달하였고 디자인의 획일성은 의복상의 신분과 직업, 연령의 구별을 없애면서 의복의 통일화를

실현해 갔으며 생산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화로 인해 패션은 종래와 같은 소수 상류층보다 더 넓은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10].

또한 20세기의 대중화 사회형성에 의해 패션도 과거의 엄격한 의복규범과 위계질서에서 벗어나면서 반항과 불일치, 사회적 개혁을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시도, 개성과 독창적인 특성을 지닌 키치패션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하게 되었다[11].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은 현재 패션에서의 키치적 이미지인 자극적이고 저속하고 험란한 색채, 산만한 장식, 싸구려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현대의 물질문명에 대한 반감을 대변하면서 혁신적이고 개성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4. 키치패션의 사회문화적 의미

키치는 경제발전과 매우 밀착된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에 힘입어 원시미술이나 민속예술, 아방가르드까지 일체의 작품들을 값싸게 모방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러한 시장들을 목표로 발달하였다. 이처럼 키치는 절대성을 지향하던 미적가치가 기술의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드러나게 되면서 대중문화의 형식을 띄게 된다.

키치패션은 문화적인 것이 상품화로 경제적인 것이 상징화로 바뀌어 질 것임을 제시한 것처럼[12] 결국 소비의 자기만족적인 측면을 강화시킴으로써 대중적 성격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적 패션에서의 키치는 맞춤형 전문 패션인 오프구뜨르가 기성복 패션에 압도당하는 1960년대 이후 시점에서 급격히 확산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중문화의 대표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활성화된 대량소비의 영향을 받은 대중들은 사회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변화를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형성하였다. 더불어 키치패션의 소비는 쾌락을 추구하는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욕구와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13].

한편, 패션에 있어서의 키치는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에 대한 반대, 격식에 대한 반대, 전통에 대한 이단적 감각의 표현으로 새로운 미의식으로 발전시키면서 다원화

된 대중사회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적 기준의 모호성은 키치를 더욱 번성하게 하였으며 미적 범주의 새로운 확장은 패션에서는 모든 형태의 다양한 패션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키치 상품소비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실제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패션 상품 소비에서 나타나는 키치 특성은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비자들의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소비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키치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본다.

표 1. 패션상품 소비에서의 키치 특성과 소비심리[14]

	키치특성	소비심리
조형적 특성	축적성	소속확인
	미적 부적절성	현실도피, 쾌락추구
내용적 특성	진품 가치의 추구	대리만족
	사회적 가치의 소비	소속확인
	개인 취향의 이미지 소비	개성추구, 쾌락추구

5. 영화속에 표현된 키치패션

5.1 스타일의 특징

영화속에 표현된 키치패션 스타일은 다양한 하위집단에서 성립되어 유행되어 왔던 스타일로 재미있고 당황스럽기까지 한 스타일을 함으로써 반 미학(anti-aesthetics)으로 고상한 취미보다는 저속한 취미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 미적 질서에서 벗어나 부자연, 부조화, 불균형의 미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감성과 자유로움을 위해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면서 나만의 즐거움과 나만의 개성, 만족을 스타일로 표현한다. 그리고 때로는 무질서 하고 부조화를 통해 반항적인 면을 강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속한 스타일과 유행에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고 나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듯 영화 속에서는 품위 없는 천한 모습의 옷차림과 싸구려 액세서리 등에 의한 과잉장식을 통해 지저분하고 추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키치패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5.2 착용의 특징

키치패션을 즐기는 사람들은 해당 시대의 주류적인 패션, 혹은 일반적인 유행패션을 반대,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행 옷들은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과의 동조 의식을 거부하는 행동의 하나로 예쁘지도 않고 몸에 잘 맞지도 않는 때로는 조화로운 색상도 아니면서 매번 자기만의 새로운 스타일, 즉 구속 받는 것을 거부하는 착장행동을 한다. 또 외관상으로도 미적인 측면에서의 유치한 결합과 배합의 오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질감이 나는 키치 요소를 가미하거나 일반적 착장법에 어긋나게 입기도 하고 디자인의 균형이나 비례에 어울리지 않는 착용을 한다.

최근에는 싸고 유치하면서 쉽게 소모될 수 있는 것으로 키치적인 감성을 느끼게 하는 액세서리, 플라스틱, 비닐 등의 일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값싸게 대량생산된 모조품이나 위조품을 지향하는 패션이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것이 패션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차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이 가미된 키치적 요소를 착용하고 있음을 볼 때 비동조에서 비롯된 키치패션이 다시 폭 넓게 동조 현상으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

6. 코미디 영화에서 표현된 키치 패션의 조형적 특성

2000년도 상반기 한국영화에서 관객 동원에 성공한 영화 중 대다수가 코미디 장르로 이들 영화는 대부분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일회성의 웃음만을 내세운 것이었다. 코미디 영화에서 개성으로 승부를 하는 주인공의 캐릭터 표현에서는 다른 등장인물보다도 더욱더 차별화된 키치패션으로 그 성격을 가장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식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뾰글뾰글한 파마에 망사 스타킹, 초미니 스커트, 물방울무늬, 넓은 헤어밴드, 원색의 스카프 등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치패션의 요소이었다.

키치는 일종의 문화현상으로서 일차적으로 드러난 창조적 결과로서의 미적특성과 결합된 행동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즉 키치란 사물 속에 결정화된 하나의 정신상태이면서 인간존재방식의 한 유형인 키치적 태도의 객

관화된 형태가 바로 키치적인 양식인 것이다[15].

이에 A.몰리는 키치가 값싸고 천박하고 감성적이고 속물적이지만 인정되는 미적가치가 있는 산물을 의미한다고 하여 키치를 만드는 구성원리를,

- ① 부적합성의 원리 :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형태, 크기, 형식적 내용 등이 부적절하게 결합되는 것.
- ② 축적의 원리 : 형식, 내용, 기능 등의 밀집을 통해 스스로를 눈에 띄게 하는 것.
- ③ 공감각의 원리 : 다양한 감각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
- ④ 증용의 원리: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는 이질적인 것들을 혼합하여 집단적 표준화라는 중간적 위치로 위치시키는 것.
- ⑤ 쾌적함의 원리 : 편안하게 살자라는 사고방식으로 사물의 성격을 놀이에 가깝게 마구잡이식으로 선택하는 것. 등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11].

한편 임미선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키치에 관한 연구에서 키치의 조형미를 단순함의 거부, 부적절성, 자기기만적(모방성), 퇴폐적(현실 도피적)으로 구분하였고 [16], 김병옥, 엄기서는 부적절성, 탈 경전화, 과장되고 광란적, 혼성모방, 상투적 쾌락함, 쾌적함의 원리 등으로 분류하였다[17].

또한 김인숙, 김경옥은 키치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누적성, 부적절성, 낭만성, 쾌락성, 풍자성, 증충성의 6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18].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류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미디 영화에서 표현된 키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미적 부적절성, 증충성, 혼성모방, 과장성, 누적성의 5가지 특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미적 부적절성 :

나쁜 취향이라고 정의된 키치 기준에서 볼 때 나쁜 취향의 키치패션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적 부적절성의 키치패션이다.

키치의 부적절성은 재료나 형태, 크기 등의 형식적 특질의 부적합뿐만 아니라 패션에서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게 과장되어 표현되는 형태를 말한다. 즉, 기존의 착장방법을 무시한 복장,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다른 옷들과의 상호부조화, 계절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의복 등은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키치패션의 부적절성은 단지 입고 싶은 옷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기만 하면 되고 거기엔 타인의 시선이나 복장규범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만의 사고, 세계를 나타내려는 전달하는 목적으로 과장되고 유치한 키치 패션을 사용할 뿐이다.



사진 1. 울라라 시스터즈



사진 2. 울라라 시스터즈

2) 증충성

키치패션은 복식 내에서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시간적 증충성과 공간적 증충성을 모두 포함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요소가 모여 증충적 구조를 이루는 형태를 취한다. 과거의 역사적 복식과 현재의 복식이 공존하는 혹은 여러 시대의 복식이 동시에 사용되는 예에서 증충성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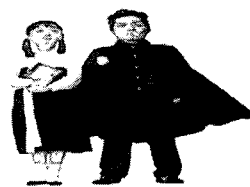


사진 3. 영어완전정복사진



사진 4. 영어완전정복



사진 5. 그녀를 모르면 간첩



사진 6. 맹부삼천지교

영화는 영화 관람객의 다양화된 욕구 추세에 따라 코미디의 한 장르만을 고집하지 않고 코믹적인 요소에 로

맨틱과 액션, 드라마적 요소를 뒤섞은 복합적 장르의 영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영화속에 나타난 패션도 시공을 초월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여준다. 현대물의 영화에 한복차림이 삽입되고 때로는 동화적 요소나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패러디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가미한 코미디 영화에서의 등장인물의 패션 스타일은 캐릭터의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 키치패션을 사용하고 있다.

3) 혼성모방

이는 허구와 사실이 섞여 있거나 패러디를 이용한 표현방법이다. 코미디 영화의 대부분은 풍자적 모방을 통해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키치패션에 표현된 방식은 과거의 문학 작품의 한 형식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거나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화적 요소나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패러디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가미한 코미디 영화에서의 등장인물의 패션 스타일은 캐릭터의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 과장되고 유치한 키치 패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형식은 관객에게 친근감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진 7. 맹부삼천지교



사진 8. 영어완전정복



사진 9. 두사부 일체



사진 10. 내사랑 싸가지

4) 과장성

키치패션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나치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장적 표현이다. 이 표현방법은 다소 억기적이기도 하고 공포, 괴이함을 보여주면서 대상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영화에 나타난 패션형태는 사회와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폭주족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이해시키려 하였으며, “마파도”에 등장하는 한 할머니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묘사를 자극적인 것이 박힌 장갑 착용과 오렌지색 색상의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어수룩하고 순진한 인물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착용하는 추리닝 패션도 코미디 영화에 자주 이용하는 일종의 키치패션이라 할 수 있겠다. 영화에 등장하는 추리닝은 운동복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촌스러움을 표현하는 키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예로 무서운 강력계 형사들의 녹색과 붉은색 추리닝 모습은 역할과 상반되는 색상을 선택함으로써 역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움을 표현한 키치패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코미디 영화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조직폭력배이다. 이들의 패션에도 키치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조트에 어울리는 옷차림인 원색의 화려한 문양에 기름을 칠한 헤어스타일과 짧은 헤어스타일에 원색의 셔츠 칼라를 찾혀 입거나 양복에 넥타이대신에 화려한 귀금속 액세서리를 한 패션 스타일은 건달 패션의 트레이드마크인 동시에 키치패션의 코드이기도 하다.



사진 11. 마파도



사진 12. 독바로 살아라



사진 13. 두사부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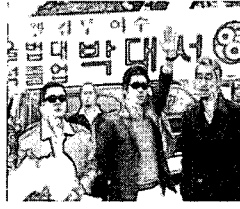


사진 14. 가문의 영광



사진 15. 목포는 항구다



사진 16. 목포는 항구다

5) 누적성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며 단순함을 거부하는 치키 특성은 복식에 있어 여백의 공간을 남기지 않고 모두 장식하여 채워버리는데 특히 장신구를 과도하게 장식하거나 색채나 문양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진 17. 불어라 봄바람



사진 18. 불어라 봄바람

III. 결론

예로부터 영화와 패션과는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패션의 대중유행에는 영화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이는 영화 배우들의 이미지는 그들의 역할에 맞는 패션을 착용함으로써 완성되었다. 또한 영화에서 표현된 패션이미지는 일반 대중들의 패션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 코미디 영화들은 우스운 상황에 눈물을 흘리게 하게 슬픈 상황에 웃게 하는 때로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

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혀를 찌르는 대사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영화내용을 보다 실감나게 완성시키면서 배우들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이 키치패션이었다.

영화에서의 패션은 등장인물의 성격, 역할, 신분, 내면적 가치관, 태도 등 다양한 정보를 담당하는 한편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갈등과 해결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코미디 영화 속에서 표현된 키치패션을 분석해 본 결과에도 등장인물이 착용한 키치패션은 이들 영화 속에 그려진 캐릭터들의 생각과 성격은 물론 생활, 인물들의 직업까지도 쉽게 알아차리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키치라는 것이 저속한, 천박한 부류의 것으로 정의된 만큼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3류 인생을 평범하지 않는 키치패션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유희적인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화 속에서의 키치패션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유도하는데 손색이 없었으며 새로운 코미디 바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영화와 패션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하면서 균형 잡힌 하나의 이미지로 발전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영화계와 패션이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맺고 철저한 패션분석을 통해 이미지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식에서 말하는 키치패션은 스스로의 목적과 가치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시 재배치, 재조합하여 그것들이 서로 교환, 비교 변형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었지만 영화 속의 키치패션은 그들의 직업을 부각시키고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 내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영화속 허구와 실제 삶 속에서 키치패션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키치 문화가 이제는 확실한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소수 집단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키치패션도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키치패션은 새로운 착장행동을 만들면서 누구나가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패션 트렌드인 동시에 중요 유행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미적 판단 기준이 정립되리라 여긴다.

참고 문헌

- [1] K. Hearise, 오병남, 최연희 역,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p.123, 1988.
- [2] 이병애, “독일문학작품에 나타난 키치에 대한 연구”, *독일문학* 14집, p.73, 1973.
- [3] R. C. Solomon, 김영미 역, “On Kitch an Sentimen tality,” Jacc, 겨울호, p.127, 1991.
- [4] *디자인 공예 대사전*, 미술공론사, p.10, 1990.
- [5] 이영옥, “Kitsch 미술우리문화”, *ART&CREFT*, 10월호, 1992.
- [6]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술, p.183, 1997.
- [7] 이영옥, “키치란 무엇인가”, *아트&크래프트* 10월호, 1992.
- [8] 정삼호,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p.111, 1996.
- [9]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p.275, 1999.
- [10] 김민수, “키치광고의 속성과 문화적 상징성”, *디자인지*, p.169, 1996(6).
- [11] 정홍숙, 김은하, “키치패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Vol.15, pp.4-5, 2002.
- [12]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 그래픽스, pp.134-135, 1994.
- [13] 김인숙, 김경옥,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복식*, 제47호, p.150, 1999.
- [14] 김순자, “패션상품 소비에 나타난 키치의 사회문화적 의미”, *복식*, 제51호, p.153, 2001.
- [15] A.몰, 万澤正美 譯, “キッチュ의心理學”, 法政大學 出版局, 1986. 최경한, 한정완 “디자인에 있어서 Kitsch적 요소와 그 효용에 관한 연구”, *디자인 과학 연구*, p.61, 1999.
- [16] 임미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키치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학회*, Vol.2, pp.212-216, 1998.
- [17] 김병옥, 엄기서, “국내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키치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Vol.4, pp.5-8, 2002.
- [18] 김인숙, 김경옥, 전계서,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복식*, 제47호, pp.147-149, 1999.

저자 소개

이영숙(Young-Sook Lee)

종신회원



- 1988년 2월 :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학사)
- 1994년 3월 : 일본 문화여자 대학교 복장사회학전공(석사)
- 2000년 3월 : 일본 문화여자 대학교 복장사회학전공(피복환경학 박사)
- 2000년 3월~현재 :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디자인 매니지먼트, 이미지전략